



창문 열리면 경보음... 도둑 쫓는 '1만원대 집지킴이'

정종환 도어캡 대표는 2000년대 중반 통신사의 인터넷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현관문 절도 방지용 보조장치를 만들었다. 빈집털이 절도범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물쇠 부위에 스테인리스 강판을 덧댄 것이었다. 인터넷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이 장치를 집집마다 무료로 달아줬다. '차별화 마케팅'이었던 셈이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서로 이 장치를 현관문에 달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사업화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창업에 나섰다. 제품을 더 정밀하게 개량해 마트 등에서 팔았다. 제품의 작은 틈새까지 없었다. 문을 뜯어내려 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도 넣었다. 제품이 잘 팔리자 창문에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문보다 창문을 통한 절도범 침입 사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2년여간의 개발 끝에 2014년 창문 침입방지장치 '윈도우벨'을 내놨다.

◆침입 시 경보음도 울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으로 선정된 도어캡의 윈도우벨은 창문을 단단하게 고정하면서 누군가 침입을 시도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다.

주먹만 한 크기의 이 제품은 창문이 지나다니는 레일 부위에 설

치된다. 동그란 모양의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고무 압착판이 밀착돼 앞뒤로 창문을 고정한다. 창문에 기본으로 달린 잠금장치와는 다르다. 창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뿐 아니라 절반쯤 열려 놓은 상태에서도 고정된다. 환기할 때나 여름철 더위로 창문을 열어둘 때 이 잠금 기능을 활용할 수

창문 레일에 손쉽게 부착 반만 열리게 고정도 가능해 스마트폰 연동 기능 연구

작년 중기청 '히트500' 선정 인도 등 해외 수출 계약 추진 "올해 15만개 이상 팔 것"

있다. 윈도우벨 좌우에는 살짝만 닿아도 요란한 경보음이 소리가 울리는 버튼이 달려 있다. 누군가 침입하려 하면 경보장치가 작동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추락 방지 기능으로도 쓸 수 있다. 정 대표는 "장문만 고정하거나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이 따로 있는 제품은 기존에 있었지만 두 기

능을 모두 갖춘 제품은 윈도우벨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인도 등 해외 수출 추진 정 대표는 제품 개발 시 원적이 있다. 누구나 쉽게 설치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 큰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된 타겟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반지하방에 사는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윈도우벨과 스마트폰을 연동해 경보기가 울리면 집 밖에서도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시도 중"이라며 "이 기능을 넣어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어캡은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기업이지만 지식재산권 투자에도 소홀하지 않다. 윈도우벨의 구동 방식 등 지금까지 3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판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유망 제품 발굴 프로그램인 '히트500'에 선정돼 홍보 효과를 특별히 봤다. 그 덕분에 제품이 널리 알려져 인도 등 해외 수출 계약도 진행 중이다.

정 대표는 "올해 윈도우벨 15만 개를 판매하는 게 목표"라며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시흥=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정종환 도어캡 대표가 창문 침입방지장치 '윈도우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도어캡-윈도우벨 (031)505-3240 △연진 INC-테이프절단기 '텐도' (02)6258-5588 △창상실리콘-실리콘파워락 (02)869-0123 △코휠-저진동, 저소음 비공급기 바퀴 (032)765-7737

"세계에서 통할 기업 찾습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170곳 육성

산업부-중기청, 통합사업 R&D 등 총 1266억 지원

2016년 히든챔피언 육성 계획

선정 규모	50개	글로벌 강소기업	120개
대상기업 매출	400억~1조원	100억~1000억원	
수출 기준	수출비율 20% 이상 전문기업은 수출증가율 적용	수출비율 10% 이상	
지원규모	R&D 최대 15억원	최대 연 3억원	자료: 중소기업청

정부는 올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가 될 기업 170개를 골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의 강자를 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에 모두 12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의 '2016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비슷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월드클래스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글로벌성장단계) 후보기업으로는 5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정 규모 수출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출 400억~1조원 기업이 대상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미래전략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최대 5년간 75억원(연간 15억원) 이내에서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마케팅도 지원한다. 5년간 매년 최대 1억원씩 지원받을 수

다. 중기청 관계자는 "선정기업 수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50개로 늘렸다"며 "5곳 정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기업 중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0개를 선정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글로벌도약단계)은 매출 100억~1000억원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기업이 동시에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고,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들 기업도 3년간 2억원 범위 내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도약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R&D 232억원, 해외마케팅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중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은 오는 22일부터 대구 부산 대전 수원 광주 등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LG생명과학 혼합백신, WHO 입찰자격 획득

(유엔타) (세계보건기구)

국내 제약사로는 최초 영유아 5개 질병 예방 효과 국제기구 입찰 참여 가능



LG생명과학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유아의 주요 사망 원인인 5개 질병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납품할 자격을 따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5가 혼합백신 '유엔타'(사진)가 WHO의 사전적격인증(PQ)을 획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WHO의 PQ를 받

아야 UN 산하 보건기구가 발주하는 백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5가 혼합백신 PQ는 GSK 등 글로벌 제약사 6곳만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생명과학은 올해부터 UN 산하기관인 유니세프, 범미보건기구(PAHO) 등이 주관하는 국제 백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기구 입찰 참여를

계기로 남미, 아시아, 중동 등 신생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유엔타는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치사율도 높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뇌수막염 등 5개 질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이다.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검증된 원료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쉽지 않은 백신 중 하나다. LG생명과학은 지난해 필리핀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시험(허가를 위한 최종 단계)을 시행해 뛰어난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LG생명과학은 차세대 프리미

엄 백신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안에 소아마비 예방효과를 더한 6가 혼합백신과 글로벌 제약사만 생산하는 페루구균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백신사업에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1990년대부터 백신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들이 속속 가시화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백신주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금호전기, LED 가로등 미국에 4400대 수출

금호전기는 미국 S사와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44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호전기가 공급할 LED 가로등은 50~120W 제품 5종이다. 오는 8월 말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마운트버넌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금호전기는 5000여개 LED 가로등에 대한 추가 공급계약도 진행 중이다. 금호전기 관계자는 "미국 내 주요 도시가 추진 중인 LED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에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알립니다

중소 역량, 스마트러닝으로 키우세요

강한 회사가 되고 싶습니까. 역량이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신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도 냅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인 알파코와 한국경제신문사 자회사인 한경BP가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든 교육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 스마트러닝'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업무 공백과 예산 부족으로 임직원 교육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활용,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비용 부담

을 덜었습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자 모두에게 교육용 태블릿 PC와 기업에 꼭 필요한 서적 4권을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 직원의 열정 끌어내기, 특출한 팀을 만드는 비법,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경영 전략, 회계와 친해지는 지름길 ●비용: 실제와 친해지는 지름길 36만원 전액 환급 ●혜택: 수강자 모두에게 태블릿 PC와 교재 4권 제공 ●문의: 한경BP-알파코 스마트러닝사업본부 (02)2163-5751, 5733-4 주최:한국경제신문

두통 어지럼증 이명 화병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만성두통·어지럼증! 뇌·신경정신질환의 한방(韓方) 치료!

◆중증 원인질환이 있는 두통·어지럼증 두통을 함께나 두통약 한 알로 해결하지만 뇌가 두통 증상으로 발전 할 수도 있기에 두통은 초기부터 고쳐야 한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진단해보면 대체적으로 혈액이 부족하여 뇌가 두통 증상을 나타내며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이 부족해지고 간의 기능이 저하된다 보니 혈액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혈액이 누적되어 병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담(痰)이라는 물질이 생성 되는데 담이 혈액속에 녹아들어 혈액을 타고 갖은 병증을 만들어 낸다. 이러

한 증상을 방지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따라 머리쪽으로 이동하여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MRI나 CT촬영을 해도 알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증상이 혈액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통 치료를 위해 풀과나무한의원에서는 우선 두통의 원인이 되는 혈액을 내리고 체내에 불균형이 있는 혈액이나 동맥 경맥을 풀어주는 약재를 주로 하는 한약처방을 하여 두통의 불증 정도를 67%가량 경감시켜준다. 이는 풀과나무한의원과 우석대 학교와의 연구결과를 통해 논문으로 발표돼 많은 신문에 기사화 가 되었으며 홍화, 황금, 산사, 은행 등의 약재를 주로하여 처방하

는 두통치료 약은 통증을 경감시켜 만성두통의 치료에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방치료는 신체 무리를 주지 않고 부작용이 적으며 치료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증상, 병력, 발생기간, 체질 등에 따라 약재의 종류와 용량, 침과 같은 병행요법을 미세하게 조절하기에 많은 두통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뇌·신경정신질환의 한방(韓方) 치료! 머리와 가슴에 열이차고 뇌안이 상수하면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해야한다는 인체 수화조절 생리가 깨어지고 여러가지 신체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뇌순환의 발란스가 깨진 두통, 어지럼증, 이명과 더불어 자율신경실조증, 뇌신경정신질환(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공황장애), 강박증, 사회공포, 고소 폐쇄 공포증, 시흥불안, 예가불안), 박동상, 가슴두근거림, ADHD, 외상후 증후군, 환경, 환시, 다몽증, 몽유병, 절교대에 나타날 수 있다. 한방(韓方)의 원인과 증상들 = 1.긴기울: 가슴 답답, 짜증, 공격적인 성격, 얼굴붉음, 눈피로/2.심장의 열: 가슴두근거림, 불안장애 불면증/3.폐기부족: 비열, 헌식, 중이염 등 호흡기질환/4.위경정음: 소화불량, 미적 거림, 치명피, 헛배, 설사/5.신경부족: 정력감퇴, 소변무력, 눈이 침침, 시력·가역력 감퇴, 머리흔들/6.기혈허약상: 장기무력, 월경과다, 산후허약, 허약체질/7.만성건비

풀과나무한의원의 치료

1. 뜨거운 곳 빌미로, 공기가 탁한 곳, 격렬한 운동후, 술 먹고 난후, 피곤하거나 체할 경우, 찬바람을 쐬는 두통, 편두통, 군집성두통, 어지럼증, 메니에르병, 2.림프순환, 아서증, 전정신경염, 이명(이성청각) 자주 나타남.
2. 오래 누워있어도 어깨 뭉쳐서 일어나고 머리가 두근거거나 흔들리는 두통, 어지럼증, 이명(이성청각) 나타남.
3. 눈이 항상 피곤하고 충혈이 되거나 백막(눈)이 안구건조증, 녹내장이 있고 항상 피곤한 만성피로.
4. 손발은 차가워지면서 저리고 이유없이 떨리기며 떨리고 가슴, 얼굴로 열이 오르는 증상 안면홍조, 얼굴이 붉어진다.
5. 뇌신경과인원으로 성격이 예민하고 공격적이고 분노조절이 되지않고 화를 참지 못하거나 짜증을 잘낸다.
6. 가슴이 답답, 불안, 초조하여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사회공포, 고소·폐쇄 공포증, 시흥불안, 예가불안, 가슴두근거림, ADHD 등이 있다.
7. 뇌순환저하로 머리가 무거워지며 맑지 않고 거역력, 판단력 결핍, 사회성 결핍.
8. 뇌의 퇴행성질환인 치매(노년성 뇌졸중), 경동맥, 차폐, 파킨슨병이 알려지니는 등.

풀과나무한의원의 치료

"저희 풀과나무한의원은 만성두통의 통증 정도를 67%가량 경감시키는 논문을 우석대학교와 공동 발표하였고, 특히 각종 검사를 해도 치료방법을 찾기 힘든 두통, 어지럼증, 이명 등의 머리질환과 뇌신경정신질환을 꾸준히 치료하여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풀과나무한의원의원 서울점 02) 586-8475
 대구점 032) 744-1275
 인천점 032) 502-1074